

휴전 후에도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인종학살 만행 —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합시다!

가자지구에서 휴전이 발효된 지 한 달이 돼 가지만,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팔레스타인인 250명가량을 살해하고, 200번 넘게 휴전 협정을 위반했습니다.

그간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온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이스라엘의 휴전 위반을 문제 삼기는커녕,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를 “지금 같은 전시 상황에서 이스라엘에 꼭 필요한 지도자”라고 추켜세우고 있습니다.

가자지구의 기근 문제도 해결이 요원합니다. 당초 휴전으로 하루에 트럭 600대 분량의 구호품 반입이 합의됐지만 이조차도 영양 부족을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사망 포로들의 시신 인도가 늦어지고 있다면서 구호품 반입량을 절반 이하로

줄였습니다. 무너진 건물에서 시신을 꺼내기 위한 중장비 반입을 자신들이 막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현실이 이런데도 주류 언론들은 휴전 합의를 어기고 있는 것이 오히려 팔레스타인 저항 단체 하마스라고 비난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이스라엘은 6만 8000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희생자 중 다수가 어린이들입니다. 17만 명이 부상당하고 1만 명이 실종되었으며, 가자 지구의 85퍼센트가 파괴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가자지구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가자지구를 초토화 시키는 데 일조했으면서, ‘평화 구상’ 운운하며 팔레스타인인들의 자결권과 자치권을 어떻게든 빼앗으려 합니다.

연대는 계속돼야 합니다. 재한 팔레스타인인 나리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

만 루미 씨는 “휴전에 큰 기대를 걸지 말고 운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하고 호소합니다.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은 재한 팔레스타인인, 중동·북아프리카인 등 다양한 이주 배경의 활동가들과 노동자, 보건의료인, 대학생, 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과 인천, 부산, 울산, 대구, 원주 등 각지에서 연대 활동을 펴 왔습니다.

국제 연대 운동이 커지고, 노동자들이 그 힘을 발휘할 때, 학살을 멈출 수 있을 것입니다. 77년 동안 이스라엘의 식민 점령에 맞서 굳건히 싸워 온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합시다!

이탈리아 연대 총파업: 국제 연대 운동의 분수령

국제 연대 운동의 물결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국, 독일, 오스트레일리아, 모로코, 인도네시아 등 전 세계 곳곳에서 수천, 수만, 수십만 규모의 연대 시위대가 거리를 메웠습니다.

특히, 9월 22일 이탈리아에서는 100만 명이 이스라엘 제재와 관계 단절을 요구하며 팔레스타인 연대 총파업을 벌여 나라를 마비시켰습니다. 이탈리아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이스라엘에 무기를 많이 공급하는 나라입니다.

뒤이어 그리스와 스페인에서도 팔레스타인 연대 총파업이 성사됐습니다.

이런 일은 하루아침에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자들은 자신의 일터에서 꾸준히 이 문제를 알리고 행동을 조직했습니다. 특히, 항만 노동자들은 일터에서 크고 작은 행동과 파업을 조직하면서 연대 운동의 초석을 놓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스라엘과 협력 중단하라

한국은 이스라엘의 인종학살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한국이 이스라엘에 전투기 부품을 공급하는 19개국의 하나임이 최근 유엔 총회 보고서에서 폭로됐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K-방산”을 키우자며 인종학살 국가 이스라엘에 무기를 대던 것을 이재명 정부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이 학살 과정에서 개발한 군사 기술을 배우려 합니다. 대선 전인 올해 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주한 이스라엘 대사를 만나 국방 분야 협력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방위산업청이 승인한 항공통제기(조기경보기) 도입 사업에도 이스라엘 기업이 포함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수년 전부터 국내 대학과 기업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산학 협력을 하도록 재정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개발은 팔레스타인인들의 생명과 땅을 빼앗는 것을 바탕으로 합니다.

학살 국가 이스라엘과의 교류를 전면 중단해야 합니다.

2025년 11월 8일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팔연사)

함께해요

107차 팔레스타인인들 연대 집회·행진

일시: 11월 15일(토) 오후 2시

장소: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앞

※ 아랍어, 영어, 한국어 통역 제공

웹사이트



1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

후원 계좌: 신한은행 110-173-517650 (예금주 최영준)

보내 주신 후원금은
연대 행동 등을 위해 사용됩니다.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행진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문의: 010-7550-2131

부산, 울산, 대구, 인천에서도 정기 연대 집회와 행사 등이 열립니다. 일정은 웹사이트 참조.